

우성사료

비육우 신제품 “眞육우마루” 출시

우성사료(대표이사 지평은)가 육우사업의 생산성과 수익을 높일 수 있는眞육우마루 육우용 제품과 급여프로그램을 새롭게 내놓았다.

眞 육우마루는 사용되는 원료의 고급화를 통해 비육 3단계 전구간에 고단백·고에너지 원료인 루핀 후레이크와 양질의 섬유소원을 보충해줄 수 있는 비트펄프를 기용하였다. 또한, 육성단계에는 알팔파 펠릿을 비육후기단계에는 면실을 사용함으로써 고품질, 고영양 스펙에 맞는 원료를 과감히 투자하여 비육우 생산성을 최대화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김민국 박사(우성사료/기술개발연구소)는 “우성의 비육우 신제품은 기존 제품 대비 보다 정교한 원료평가 방법을 접목하였고 반추위 발효 밸런스 조절기술을 통해 영양소의 이용효율을 향상시켜 비육우 농장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신제품 개발 배경을 밝혔다.



카길애그리퓨리나

‘2016대한상의·포브스사회공헌대상’ 지역사회공헌대상 수상

(주)카길애그리퓨리나(대표 이보균)는 지난 9월 29일, ‘2016 대한상의·포브스 사회공헌대상’ 지역사회공헌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카길애그리퓨리나는 1997년 비영리 문화재단인 (재)카길애그리퓨리나 문화재단(이사장 이보균)을 설립하여 사회공헌 활동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재단은 1998년부터 2015년까지 18년간 총 23단체와 69명의 개인에게 ‘카길애그리퓨리나 문화재단 축산·사료 연구기술대상’을 수여해왔다. 또한 1993년 이래 1천여 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학업 성취를 지원해주고 있다.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이보균 카길애그리퓨리나 대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이념아래 추진했던 노력들을 인정받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국 기업(Korea based Company)이라는 믿음으로 앞으로도 축산업 발전과 함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건강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 카길애그리퓨리나, 2016 대한상의·포브스 사회공헌대상 수상 임직원일동